

3. 무속신앙

무속신앙은 사제자인 무당을 주축으로 하여 민간에서 전승되고 있는 종교 형태이다. 무속신앙은 다른 민간신앙 중에서 가장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종교적 지도자인 무당이 종교의식을 집행하며, 종교의식에 필요한 경전으로 무속신화, 즉 무가가 있다. 이 속에 우주 질서와 교리 지침이 들어 있다. 무속은 현대적 차원에서의 인위적 손길이 미치지 못해 자연적 원시종교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을 뿐, 종교로서의 제 요소를 구비하고 있다. 또한 무속은 오늘날에도 살아 있는 종교로서 민간층에 뿌리깊이 파고들어 폭넓은 종교적 기반을 갖고 있다.

무당은 크게 샤먼계의 강신무(降神巫)와 사제계의 세습무(世襲巫)로 구분된다. 앞의 것은 신 들린다는 일종의 정신병에 걸려서 무당이 된 경우이고, 뒤의 것은 무인의 집안에 태어나 세습하여 무당이 되는 경우이다.

지역에 따라 강신무는 중·북부지역에 산재하며, 세습무는 남부지역에 분포한다. 중·북부지역의 강신무는 강신에 의한 신병 체험을 통해서 성무(成巫)하여 신의 실재를 믿고 강신한 신의 영력에 의해 예언을 하며 제의를 집행한다. 남부지역의 세습무는 사제권의 세습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성무했기 때문에 영력이 없어 제의가 형식적으로 의례화해 이루어진다. 중·북부지역의 무당이 강신 체험과 체험된 신을 봉안한 신단, 그리고 체험된 신의 영력에 의해 진행되는 제의의 일원화를 보이는 데 비해 남부지역 세습무는 강신 체험이 없어 신의 영력이 없는 동시에 신단이 없으며, 영력이 없어 제의가 이원적 양식으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강신무들에 비해 세습무들에게는 신복(神服)으로서의 무복(巫服)이 도태되고, 무구(巫具)에서도 영력의 요소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순천을 비롯한 전남의 무속은 세습을 이루는 사제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전남지역에서 이들 세습무에 대한 일반적인 호칭은 ‘단골’이라 부른다. 단골의 성무과정에는 강신 체험과 무병의 현상이 없다. 전적으로 가계에 따라 단골 신분이 계승되고, 학습에 의하여 무업이 전승되는 것이다.

이 지역에서 무의 주류가 세습무인 단골이지만 강신무 계열인 점쟁이도 일정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전남에서 단골과 점쟁이는 서로 적대자이자 상보자로서 존재하고 있다. 단골은 단골대로, 신이 내려 짐상을 받는 점쟁이는 또 그들대로 궁지를 가진다. 따라서 유일한 종교적 지도자로 군림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암투가 있었다. 현재는 단골의 수가 위낙 줄어들었고, 또한 그 조직력이 약화되어 이들의 외적인 갈등은 표면화되지 않고 있지만, 단골이 우세했던 과거에 점쟁이는 점을 치는 일이나 간단한 비손밖에는 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러서는 과거에 단골이 했던 여러 가지 무의를 맡아서 하는 예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들은 상보적인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신이 내려 신병을 앓게 되면 단골은 ‘내림굿’을 해서 점쟁이로서의 입문을 도왔다. 이것은 중부 이북지역이나 동북아시아 일대의 입무의례의 성격을 갖는다. 입무의 의미가 사회적인 공인이라고 할 때, 단골은 점쟁이에 비해서 대사회적으로 종교적인 우위를 가지는 것이다. 점쟁이의 경우도 역시 단골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면 점을 치러 온 사람에게 굿을 하도록 종용을 하고, 이에 따라 단골을 찾아가 굿을 청한다. 때로는 점쟁이가 특정의 단골을 지정하기도 한다.

전남지역에서 단골과 점쟁이는 서로 적대시하는 반면에 이렇듯 공생하였다. 지금은 단골보다 점쟁이의 세력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양자의 관계가 소원해진 느낌을 준다. 위에서 본

무속의 변화 추세를 그대로 보이고 있는 이 지역은 얼마 전까지는 주로 세습무가 주류를 이루어왔으나, 지금은 강신무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곳의 세습무와 강신무들은 비교적 상보적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 요즘에 벌어지는 씨김굿은 이들의 협력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재 활동하는 단골들을 중심으로 무와 무계, 단골판, 무의식과 굿의 종류, 굿의 사례, 무조(巫祖)전설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단골판의 경우 1950년대 무렵까지 유지되고 있었다고 하는데, 면담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였다. 무가는 따로 항목이 설정되어 기술되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였다.

무속은 1차(1991. 1. 13~14.), 2차(1994. 7. 5~6.)에 걸친 현지조사 과정에서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하였다.